

쿠웨이트전 완전체 출격... 'SON 활용법' 관건

'베테랑' 손흥민·'젊은피' 배준호... 오늘 '왼쪽 날개' 선발 놓고 고민 손흥민 A매치 50호골 도전...배준호는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노려

‘손흥민일까? 배준호일까?’
쿠웨이트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5차전(한국시간 14일 오후 11시)을 앞둔 흥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효율적인 손흥민 활용법’을 놓고 마지막 고민에 들어갔다.
흥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현지시간 12일 오후 쿠웨이트 쿠웨이트시티의 압둘라 알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현지 도착 이후 두 번째 팀 훈련을 치렀다.
이날 훈련에는 11일 저녁과 12일 새벽에 대표팀에 합류한 이현주(하노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손흥민(토트넘), 설영우(스베츠다), 오현규(헝크)가 참석, 태극전사 26명이 모두 모여 완전체를 이뤘다.
가장 반가운 얼굴은 단연 손흥민이다.
지난 9월 왼쪽 허벅지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10월 월드컵 3차 예선 3-4차전에서 결장했던 손흥민은 부상을 이겨내고 환한 표정으로 대표팀 훈련을 치렀다.
손흥민은 대표팀의 주장이자 전방 공격을 책임지

는 ‘베테랑’ 골잡이다.
A매치 129경기에서 49골을 터트린 손흥민은 1골만 더 추가하면 역대 한국 대표팀 A매치 통산 득점 2위인 ‘대선배’ 황선홍(50골)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통산 1위는 차범근(58골)이다.
몰아치기 득점에 능한 손흥민은 내년에는 차범근을 넘어 한국 남자 역대 A매치 최다골의 주인공 자리를 꿰찰 가능성이 높다.
부상을 벗어난 손흥민으로서 대기록 달성의 새로운 출발점이 이번 쿠웨이트전이다.
손흥민은 소속팀인 토트넘에서도 부상을 고려해 출전 시간을 조절하는 상황이라 이번 쿠웨이트전에서 풀타임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는 의문 부호가 남는다.
토트넘의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최근 ESPN과 인터뷰에서 “우리 팀과 한국 대표팀 모두를 위해 양자가 협력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흥명보 감독을 향해 출전 시간을 배려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정도다.
흥 감독 역시 “간강한 손흥민이 중요하다”고 호응

하며 이번 중동 원정 2연전에서 손흥민을 무리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사용법’을 구상하고 있다.
흥 감독의 믿을 구석은 ‘젊은 피’ 배준호(스토크 시티)다.
지난 6월 처음 대표팀에 발탁된 배준호는 싱가포르를 상대로 A매치 데뷔전에서 골을 뽑아내며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배준호는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10월 월드컵 3차 예선 3-4차전에서 왼쪽 날개를 맡아 두 경기 연속 도움을 작성, 흥 감독의 확실한 눈도장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배준호는 이번 11월 중동 원정 2연전에서 ‘효율적 손흥민 사용법’의 해법으로 떠올랐다.
흥 감독은 쿠웨이트전에서 ‘왼쪽 날개’ 선발 출전을 놓고 손흥민과 배준호를 저울질하는 상태다.
배준호는 12일 팀 훈련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10월 대표팀 소집 때는 생각보다 많은 출전 시간을 받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며 “이번에는 손흥민 형이 있다. 형들을 도와서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각오를 전했다.
그는 “부담감보다는 젊은이의 패기로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대표팀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템포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
/연합뉴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흥명보 감독이 12일 오후(현지시간) 쿠웨이트 압둘라 알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팀 훈련에서 손흥민의 몸놀림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FC 양민혁, K리그 ‘이달의 영플레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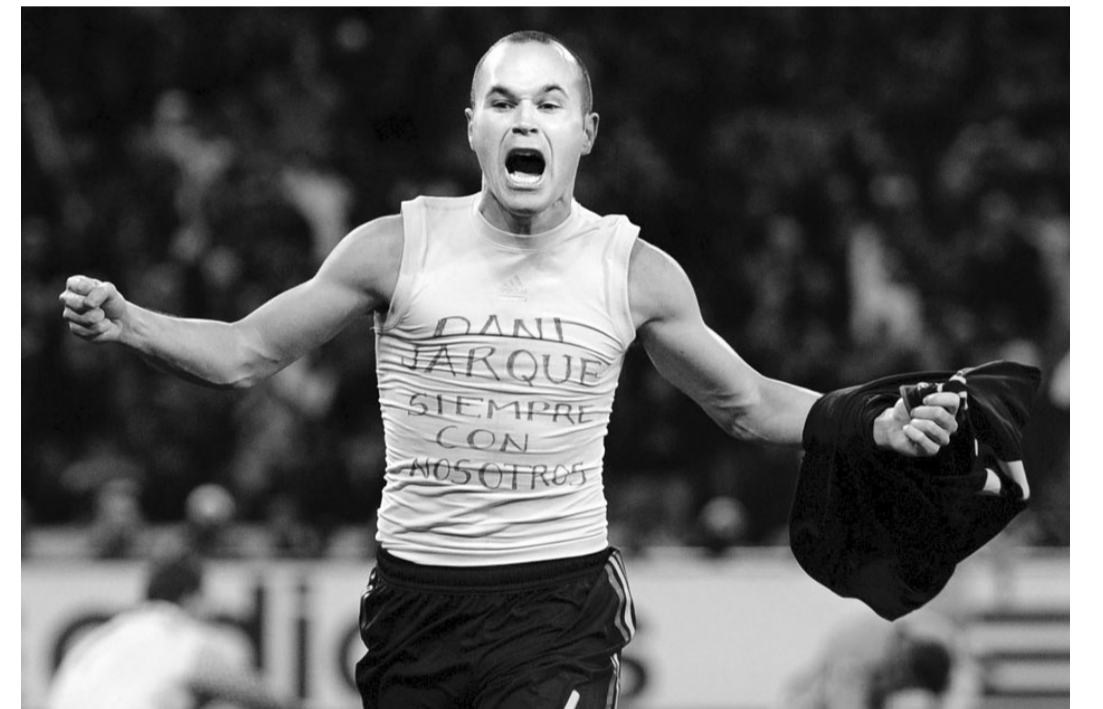
통산 최다 5번째 수상

‘2006년생’ 강원FC 공격수 양민혁(사진)이 10월 K리그 ‘영플레이어상’ 주인공이 됐다. 다섯 번째 수상으로 ‘영플레이어상’ 신설 이후 최다 수상 기록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양민혁을 ‘세븐선택트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영플레이어상’은 K리그 선수 중 ▲한국 국적 ▲만 23세 이하 ▲K리그 공식 경기에 첫 출장을 기록한 연도로부터 3년 이하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월의 소속팀 총 경기 시간 중 절반 이상 출장한 선수를 후보군으로 한다.
양민혁은 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연구그룹(TSG) 위원들의 논의 및 투표를 통해 윤도영(대전), 이규백(포항), 황재원(대구)을 제치고 10월 수상자가 됐다.
양민혁은 K리그1 33라운드 인천전에서 1골 1도움의 활약으로 강원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35라운드 김천전에서는 팀의 1-0 승리를 부른 결승골을 장식했다. 양민혁은 두 라운드에서 모두 ‘베스트11’에 선정됐다.
양민혁은 또 10월 3경기에 모두 나와 전 시간 출장했고, 팀은 3연승을 거뒀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양민혁은 프로 첫해 개인 통산 다섯 번째 영플레이어상 수상에 성공했다. 앞서 양민혁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네달 연속 수



상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올 시즌 준프로계약 선수로 K리그에 데뷔한 양민혁은 3월 23일 제주와의 개막전부터 전 경기 선발로 출장해 활약을 이어오고 있다.
양민혁은 출전, 득점, 공격포인트 등 구단 최연소 기록을 모두 잡아치우면서 11골 6도움을 기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정식 프로 선수 계약을 맺은 그는 내년 시즌에는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에서 뛰는 중이다.
양민혁은 오는 23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포항과의 홈경기에 앞서 트로피와 상금을 받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10 남아공 월드컵 결승에서 결승골을 터트린 뒤 환호하던 이니에스타. /연합뉴스

이니에스타, 도쿄 ‘엘 클라시코’서 은퇴경기

12월 15일 아지노모토 스타디움

다음달 일본 도쿄에서 ‘전설들의 엘 클라시코’가 펼쳐진다.
스페인 국가대표팀과 명문클럽 FC바르셀로나에서 활약했던 안드레스 이니에스타(40)의 은퇴를 기념하는 무대에서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니에스타의 은퇴 경기가 12월 15일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개최된다”고 12일 밝혔다.
‘도쿄에서의 엘클라시코’(El Clasico in Tokyo)라 불리는 이 경기에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스에서 뛰었던 세계적 스타 플레이어들이 대거 참가한다.
‘전통의 승부’라는 의미의 ‘엘클라시코’는 세계 최고의 라이벌 매치로 꼽히는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을 이른다.
일본 언론은 J리그 비셀 고베에서 5년 반을 뛰었던 이니에스타가 ‘제2의 고향’인 일본을 축구 인생의 마지막 무대로 선택했다면서 비록 은퇴 선수간 경기이지만 양 팀이 일본에서 맞붙는 것은 처음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경기에는 이니에스타를 비롯해 사비 에르난데스,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루이스 피구, 호베르투 카를루스, 아케르 카시야스 등이 출전할 예정이다.
지난달 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은퇴식을 가진 이니에스타는 스페인 대표팀에서 한 차례 월드컵 우승(2010년)과 두 차례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우승(2008·2012년)을 일군 세계 최고 수준의 미드필더였다.
특히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결승 네덜란드와 경기(1-0 승)에서는 연장전에서 결승골을 터트려 스페인의 대회 사상 첫 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정규리그인 라리가 9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4회 등 20개 이상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스페인 대표팀에서 A매치 131경기에서 나서 13골을 넣었고, 바르셀로나에서는 공식전 674경기 57골을 기록했다.
2018년 고베로 이적해 팬들을 놀라게 한 그는 2023-2024시즌을 아랍에미리트(UAE) 리그 에미르스에서 보낸 이후 소속팀 없이 시간을 보내다 은퇴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장애·비장애인 화합의 장 ‘광산구 장애인생활체육 한마당’ 성료

광산구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의 화합을 위한 ‘제3회 광산구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 한마당’이 13일 개최됐다.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과 하남그린파크 골프장에서 치러진 이번 행사에는 16개 장애인단체 종사자 및 이용자, 박병규 광산구청장 겸 광산구장애인체육회장을 비롯한 내빈 등 500여명이 자리해 장애 인식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했다.
개회식은 입장식과 특별공연으로 시작해 후원 전달식, 감사패 증정, 마술공연 순으로 진행됐고

네일아트, 헤어피스, 타투 등 풍성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어울림체육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상생·혁신·소통·화합 4개팀으로 나뉘어 공굴리기·바구니 옮기기 등 팀 대항전과 기관대항전, 휠체어 경기를 펼쳤다.
어울림 한마당과 함께 병행 개최된 ‘장애인파크골프대회’에는 56명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한편 이번 어울림 한마당에는 약 100여명이 쌀

나눔 기부행사에 동참했고 재이디, 오택캐리어, 드림 CEO 아카데미 2기 원우회, DH오트웨어 등 20곳 이상의 지역 기업이 다양한 경품과 시상품을 후원해 나눔 문화를 실천했다.
양요열 광산구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화합하고 즐기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쌀나눔 기부와 후원에 참여해주신 지역 기업에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조조선섬유조형회 특별전
: 엮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

일시 : 2024-11-1(금) ~ 2024-12-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4-11-02(토) ~ 2024-11-30(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1.15(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청년국악 힐링 콘서트)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2024년 11월

매주 토요일 17:00
광주공연마루

광주상설공연

2024년 11월 11일

11.11(수) 오후 7시 기획공연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